

제16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 금상\*



# 학교 가는 길

서동찬 | 안양 삼성초등학교 1학년 4반

“동찬아, 학교 가자.”

아침이면 우리 가족은 무척이나 바쁩니다. 엄마는 출근할 준비를 하고, 누나하고 나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가방을 메고 아파트 1층에 내려오면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101동 경비실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경비 아저씨와 인사도 합니다. 학교에 가는 우리 반 친구 지환이도 만나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는 민서 누나도 만납니다.

아파트를 벗어나 골목길을 지나면 빨간 길에 들어섭니다. 빨간 길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빨간 길 왼쪽으로는 삼막천이 흐릅니다. 지금은 물이 말랐지만 여름에 홍수가 나서 삼막천이 넘치면 빨간 길로 못 다니고 육교로 다녀야 합니다. 물이 맑게 흐를 때는 물고기도 많고,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물수제비도 던질 수 있습니다. 빨간 길이 시작되면 엄마와 인사를 합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누나와 빨간 길을 따라 학교에 갑니다.

내가 이 길을 다니게 된 것은 7살부터입니다. 누나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멀게 느껴졌는데, 1학년이 되니까 가깝게 느껴집니다. 요즘

학교에 갈 때 볼 수 있는 것은 예쁘게 핀 코스모스와 동그란 나뭇잎 아카시아, 몸에 척척 달라붙는 도깨비풀, 벼처럼 생긴 갈대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뭇잎을 꺾어 친구와 게임을 합니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나뭇잎을 떼어내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지는 게임입니다. 한들한들 피어 있는 코스모스 잎을 따보기도 하고, 강아지풀을 뽑아 누나를 간지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학교에 도착합니다. 봄에는 송충이가 바글바글해서 까치발을 들고 걸어야 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더운 여름에는 걷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잠자리라도 잡는 날이면 매우 즐겁습니다.

아빠가 쉬시는 날에는 아빠와 같이 빨간 길을 걷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비만이 되기 쉬운데 학교를 가면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으니 정말 좋구나.” 하고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빠와 하천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돌멩이를 누가 멀리 던지는지 시합도 합니다.

학교 가는 길은 멀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 곤충과 식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